



한-중남미 경제·통상협력 강화방안 논의

- 통상교섭본부장, 주한중남미대사단과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5월 20일(화) 서울에서 주한중남미대사단*(단장: 페데리코 쿠에요 주한도미니카공화국 대사)과 간담회를 갖고, 한-중남미 간 경제·통상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GRULAC(Group of Latin America & Caribbean Countries): 한국에 상주공관을 둔 중남미 외교단 모임으로서 멕시코·브라질·칠레·페루 등으로 구성

중남미는 인구가 6.9억명에 이르는 거대시장이자, 풍부한 핵심광물을 보유한 지역으로서 최근 자국우선주의와 자원민족주의 확산에 대응하여 우리가 수출 다변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관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 핵심 지역이다.

정 본부장은 간담회에서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한-페루, 한-콜롬비아, 한-중미 FTA가 우리나라와 중남미 간 협력의 기폭제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최근 글로벌 통상전쟁이 심화되는 만큼 새로운 FTA 체결도 적극 검토할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정 본부장은 중남미는 구리·리튬 등 핵심광물의 보고(寶庫)로서 한국은 전기차·2차전지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만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올해 APEC 의장국으로서 APEC 정상회의와 CEO 썬밋(Summit) 등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며, APEC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주한중남미대사단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를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통상정책국	책임자	팀 장	안응수 (044-203-5630)
	중남미대양주통상팀	담당자	사 무 관	조석인 (044-203-5634)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 행사 개요

- (일시/장소) '25.5.20(화), 12:00~14:00 / 포시즌스 H
- (참석) ^韓 통상교섭본부장, 중남미대양주통상팀장
 ^{중남미} 주한중남미대사단 (총 16개국, 사절단장: 주한도공대사)
- (목적)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 한-중남미 협력 강화 방안 논의

□ 세부 일정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2:00 - 12:05 (05')	· 사진 촬영	주요 참석자
12:05 - 12:10 (05')	· 모두 발언	주한도공대사
12:10 - 12:15 (05')	· 모두 발언	통상교섭본부장
12:15 - 13:58 (103')	· 오찬 및 네트워킹 (참석자별 자유 발언)	참석자 전원
13:58 - 14:00 (02')	· 폐회	중남미팀장